

황의조, 실력으로 모든 논란 잠재우다



1일(현지시각) 오후 인도네시아 치비농 파칸사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대한민국과 일본의 금메달 결정전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한국 황의조가 기뻐하고 있다.

한국 축구 사상 첫 아시안게임 2연패는 위업에서 공격수 황의조(26·갑파 오사카)를 뺄 수 없다. 스스로 모든 논란을 잠재웠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은 1일 오후 8시 30분(한국시간) 인도네시아 보고르 치비농의 파칸사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일본과의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결승전에서 연장 접전 끝에 이승우(베로나)와 황희찬(함부르크)의 골을 앞세워 2-1로 승리했다.

선발 출전한 황의조는 몇 차례 결정적인 기회를 놓쳤지만 연장 후반 13분까지 118분 동안 그라운드를 지키며 금메달 획득에 일조했다. 황의조는 이번 대회에서 9골을 터뜨리며 득점왕에 올랐다. 그의 활약은 대표팀과 김 감독에게 특별한 의미다. 지난 7월 16일 아시안게임 출전 최종엔트리 발표 이후 조금 좋지 않은 소리를 들었다. 황의조는 손흥민(토트넘), 조현우(대구)와 와일드카드(24세 이상 선수)로 김학범호에

‘인맥축구’ 비난 잠재우고 9골 득점왕 단일 국제대회 최초 해트트릭 2회 기록 새 출발 벤투호, 9월 A매치 대표팀 승선

승선했다. 일부에서 황의조 발탁에 의문을 품었다. 공격과 수비의 중심인 손흥민, 조현우와 달리 황의조는 최근 성인대표팀에서 주목할 만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 배경이다. 당시 스페인에서 뛰고 있는 이강인(17)의 활약에 여론이 달아오르자 일각에서 성남FC 시절 김학범 감독과의 사제 인연을 언급하며 ‘인맥’ 때문에 선발한 것 아니겠느냐는 의심과 함께 비난을 퍼부었다. 딱히 근거는 없었다. 김 감독이 “유럽에서 뛰는 공격수들의 합류 시기가 불투명해 조별리그를 책임질 공격자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댔지만 비난의 수위는 더 올라갔다. 일본 J리그에서 뛰는 황의조는 올 시즌 14골(리그 9골)을 넣어 누구보다 득점 페이스가 좋았다. 자신을 못마땅해하는 분위기를 잘 알았다. 황의조는 선수단에 뒤늦게 합류하면서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내가 더 잘하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세간의 평가를 뒤집겠다는 각

오름 밝혔다. 그리고 이 말을 지켰다. 바레인과의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황의조는 우승후보 우즈베키스탄과의 8강전에서도 3골을 몰아쳤다. 역대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을 통틀어 단일 국제대회에서 두 차례 해트트릭을 기록한 건 황의조가 처음이다. 단일 대회는 조별리그에 이어 토너먼트 방식으로 치르는 모든 국제대회를 말한다. 황선홍이 가진 역대 한국 선수 아시안게임 최다 득점을 노렸지만 이는 이루지 못했다. 황선홍은 1994 히로시마대회에서 11골을 넣었다. 금메달로 병역혜택을 받은 황의조는 단판대회가 예상된다. 당장 파울루 벤투 신임 축구대표팀 감독이 황의조의 활약을 보고 이날 열릴 코스타리카(7일), 칠레(11일)와의 A매치 평가전에 불러들였다. 황의조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근거 없는 인맥 논란의 중심에서 마음고생이 심했다. 금메달과 9골, 득점왕으로 홀출 났었다.



1일(현지시각) 오후 인도네시아 치비농 파칸사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사상 첫 금메달을 차지한 대한민국 선수들이 손흥민을 행크래 치고 있다.

손흥민 “연장 30분, 평생 잊을 수 없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혜택이라는 큰 선물을 받은 손흥민(토트넘)이 국민들에게 모든 영광을 돌렸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은 1일 오후 8시 30분(한국시간) 인도네시아 보고르 치비농의 파칸사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일본과의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결승전에서 연장 접전 끝에 이승우(베로나), 황희찬(함부르크)의 릴레이 골에 힘입어 2-1로 승리했다. 아직 군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손흥민은 이번 대회 금메달로 큰 짐을 덜었다. 이제는 국내 유턴 걱정 없이 유럽에서 맘 놓고 뛸 수 있게 됐다.

▶첫 골 들어갈 때 기분은. “선수들 밖에 안 보였다. 선수들 코칭 스태프들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컸다. 그 다음에 태극기와 국민들이 보였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고맙고 감사했다. 그런 생각이 제일 많이 지나갔다.”

▶마지막 30분은 손흥민의 축구 인생에서 어떻게 기억될까. “평생 잊을 수 없는 30분이다. 골도 넣고 골도 먹고 기회도 있었고 축구는 짧은 시간에도 많은 것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느꼈다. 우리에게 행운이 따랐다.”

▶독일전과 아시안게임을 통해 다시 긍정적인 분위기가 됐는데. “내가 공헌했다기 보단 대한민국 축구인들이 많이 공헌했다. 월드컵에 갔던 사람, 아시안게임 왔던 사람이 정말 많이 공헌했다. 이게 다가 아니다. 나부터 그러겠지만 모두가 희생해야 한다. 좀 더 발전하는데 기여하고 싶다. 이제 많은 팬들이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배신하면 안 된다.”

▶손흥민에게 금메달이란. “국민의 것이다.”

아시안게임 축구, 시청률도 금메달

연장 후반 64.7%

시청률 34.0%보다 21.5%포인트가 높았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축구 결승전 시청률이 60%대를 찍었다. 시청률 조사회사 TNMS 미디어 데이터에 따르면, 1일 밤 KBS·MBC·SBS 지상파 3사가 생중계한 한국 대 일본 축구 결승 연장전의 세 방송사 합계 시청률은 전반 62.4%, 후반 64.7%까지 치솟았다. 결승 본 경기 합계 시청률은 전반전 55.1%, 후반전 55.6%였다. 지난달 29일 베트남과 준결승 경기 당시 합계 시청률 41.4%보다 14.1%포인트 높았다. 이에 앞서 혈전을 치른 27일 우즈베키스탄과의 8강전 경기 시청률 합계 시청률 34.0%보다 21.5%포인트가 높았다

골 득점별로 시청률을 살펴보면, 손흥민 도움으로 이승우가 연장전 전반 3분 첫 골을 넣은 순간 지상파 3사 시청률 합은 56.4%. 연장 전반 10분 손흥민 도움으로 넣은 황희찬 두 번째 골은 65.2%까지 상승했다. 이날 채널별 시청률 승자는 MBC였다. 전반전 시작부터 연장 후반 종료까지 안정환·서형욱 해설위원 김정근 캐스터가 포진한 MBC는 시청률 23.4%를 찍었다. 이영표 해설위원과 이재후 캐스터가 중계한 KBS 2TV는 20.8%를 기록했다. 최용수·장지현 해설위원 배성재 캐스터가 함께한 SBS TV는 11.5%에 그쳤다.

뉴캐슬 기성용 3경기 연속 풀타임 활약

기성용(29·뉴캐슬)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3기 연속으로 풀타임 활약을 펼쳤다. 기성용은 2일(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맨시티와의 2018~2019 시즌 EPL 4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선발로 나와 전후반 90분간 그라운드를 누볐다. 이로써 기성용은 지난달 27일 첼시와의 3라운드, 30일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컵 대회 이어 이날까지 3경기 모두를 풀타임으로 뛰었다. 이날 뉴캐슬은 후반 7분 맨체스터 시티 카일 위커에게 역전골을 허용해 1-2로 패했다. 뉴캐슬은 전반 8분에 맨시티 라힘 스탈링에게 선제골을 허용하며 끌려갔다. 뉴캐슬은 전반 30분 디안 드레 에틀링이 역습 상황에서 동점골을 뽑아내며 1-1로 균형을 맞춘다. 그러나 후반 7분 페널티 지역 외곽에서 날린 위커의 중거리슛이 골로 연결되며 1-2로 졌다. 뉴캐슬은 첫 승 사냥에 실패하며 1부3패(승점 1점)로 리그 18위에 머물렀다. 한편 맨시티와의 경기를 마친 기성용은 파울루 벤투 감독이 지휘하는 A매치 평가전에 출전하기 위해 3일 대표팀에 합류한다.

■ 숲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신정,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년도 구례군은 지리산오천, 칠새미골, 화연사, 설진강, 운조루, 패야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물어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